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2018년 12월 21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8만 km ² 	인구 4.5백만 명 (2018 ^e)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1,445억 달러 (2018 ^e) 	1인당GDP 31,915달러 (2018 ^e) 	통화단위 Kuwaiti Dinar 	환율(U\$기준) 0.30 (2018 ^e) 

- 아라비아 반도 동북단에 위치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0년 이라크의 침공이 있었으나,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UN)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
- 인구 450만 명, 국토면적 1.8만 km²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세계 7위) 및 천연가스(세계 19위)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다만,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쿠웨이트 정부는 장기 국가개발계획인 'New Kuwait 2035'를 수립하여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북부 걸프 지역의 금융·상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신도시 건설, 인적자원 개발 등 총 16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즉위한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Emir)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왕위 승계와 관련한 분파 간 갈등이 존재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9. 6. 11 수교 (북한과는 2001. 4. 4)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82년), 문화협정('83년), 무역증진협정('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00년), 경제기술협력협정('06년), 투자증진협정('07년), 형사사법공조조약('08년), 범죄인인도조약('13년), 사증면제협정('15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1-10	주요품목
수출	1,405,816	1,162,575	1,069,366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 선박해양구조물
수입	7,262,270	9,593,955	10,712,650	원유, 석유제품, LPG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7건, 25,852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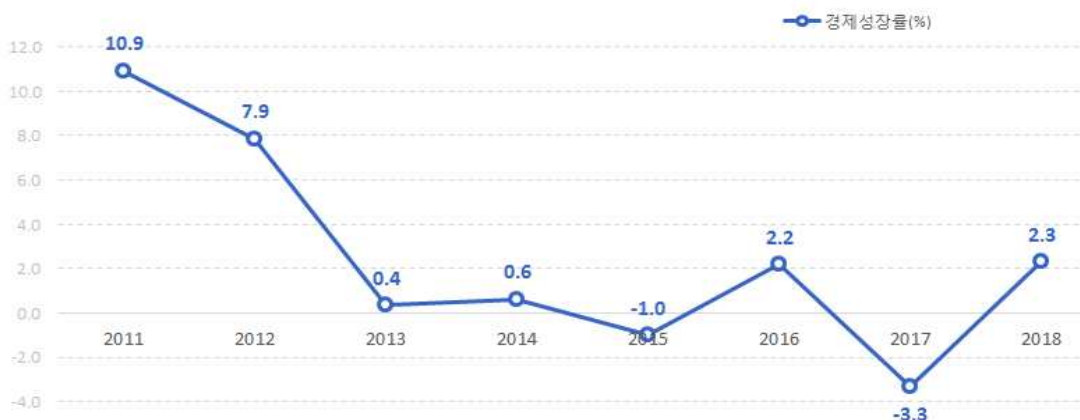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0.6	-1.0	2.2	-3.3	2.3
소비자물가상승률	3.1	3.7	3.5	1.5	0.8
재정수지/GDP	8.1	-13.5	-13.6	-8.7	0.6

자료: IMF, EU

원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2018년 플러스 경제성장률 회복 추정

- 쿠웨이트 경제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1년 10.9%, 2012년 7.9%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후 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원유 생산·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석유 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 2017년 경제성장률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해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6월 원유증산 합의** 등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2.3%의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 2016년 11월 30일 OPEC 회원국은 2017년부터 일 120만 배럴을 감산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산유국 감산 이행 감시위원회의 일원인 쿠웨이트는 일일평균 원유생산량 13.1만 배럴 감산(일일 산유량 상한선은 270.7만 배럴)에 합의한 바 있음.
- ** 2018년 6월 산유국들이 일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하였으며, 쿠웨이트는 일 8.5만 배럴을 증산을 결정함.
- 한편, 2018년 10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에서는 쿠웨이트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4.1%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12월 7일 OPEC PLUS(OPEC 회원국+비회원국)의 원유 감산 합의(2019년 상반기 중 2018년 대비 일평균 120만 배럴 감산)에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브렌트유 기준)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유가 전망이 밝지 않아 4%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쿠웨이트 경제성장률 추이



국내경제

안정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 지속

- 2016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연료 보조금 삭감, 식료품 가격 상승, 외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주택 임차료 상승 등으로 3.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내수 침체 및 주택 부문 안정 등에 따라 1.5%로 하락하였음.
- 2018년에도 부가가치세(VAT) 도입이 미뤄짐에 따라 0.8%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수입재 가격 상승 및 신용 대출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유가 회복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 전환

- 쿠웨이트는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전체 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 2010년대 들어 배럴 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재정수지 흑자*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2015년 재정수지가 적자(GDP 대비 -13.5%)로 전환하였음.

* 2010~13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연평균 27.1%에 달함.

- 2017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13.6%) 대비 축소된 -8.7%를 기록하였음. 2018년에는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0.6%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동 비중이 1.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53,966	8,587	640	7,757	20,402
경상수지/GDP	33.2	7.5	0.6	6.5	11.5
상 품 수 지	77,407	27,993	20,054	25,648	41,535
상 품 수 출	104,791	55,335	46,617	55,175	74,141
상 품 수 입	27,385	27,343	26,562	29,527	32,606
외 환 보 유 액	32,114	28,270	31,027	33,599	36,328
총 외 채	37,195	41,826	47,353	59,742	70,174
총외채잔액/GDP	22.9	36.5	42.7	50.5	55.8
D.S.R.	1.7	4.5	3.7	4.0	4.9

자료: EIU, OECD

국제유가 회복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쿠웨이트는 원유 및 원유 관련 제품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2010~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와 GDP 대비 30%대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액이 50% 가량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7.5%로 급감하였음.

* 2010년~14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연평균 38.8%에 달함.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0.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주요 산유국 감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소폭 상승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6.5%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3분기까지의 유가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 비중이 11.5%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

- 대내, 대외, 국부펀드에서 균형 있게 자금을 조달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유로본드 발행* 등 대외 차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55.8%로 전망되나, D.S.R.은 4.9%(18년 추정치)로 안정적인 수준임.
- * 2017년 3월, 80억 달러 규모의 정부채 발행(35억 달러 규모 5년물(이자율 2.8%) 및 45억 달러 규모 10년물(이자율 3.62%)
- 또한 풍부한 외환보유액(18년 추정치 363억 달러)과 쿠웨이트 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이 운영하고 있는 국부펀드 규모(18. 8월 기준 5,920억 달러)를 감안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쿠웨이트는 2010~14년 고유가에 힘입은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를 축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Moody's에 따르면 2017년 말 쿠웨이트 투자청의 국부펀드 규모는 쿠웨이트 GDP 규모의 약 5배, 정부부채의 약 2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외채지표 현황



외채 및 주요 자산 현황



구조적취약성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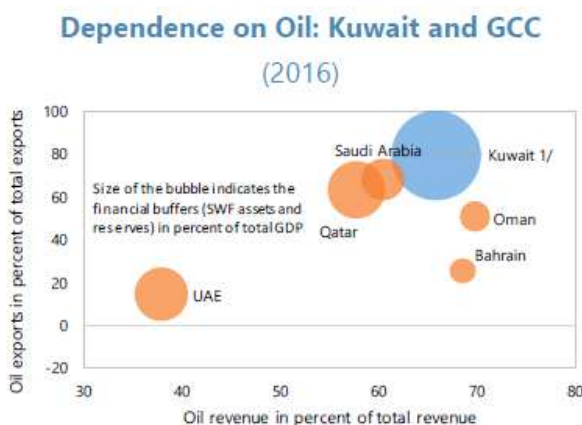
- 석유 부문이 GDP의 50%, 재정수입의 90%, 총수출의 80~9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동함.
- 또한, 석유화학산업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수입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성장잠재력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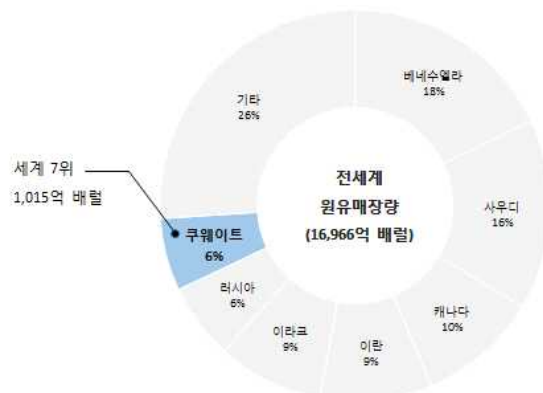
- 쿠웨이트는 한반도 면적의 1/12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7년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하고 있는 OPEC 회원국으로,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8.6월)에 의하면 2017년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302만 배럴 수준임.
- 아울러, 2017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1.7조 m³(세계 19위)로, 연간 174억 m³ 이상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원 부국임.

쿠웨이트와 GCC 국가들의 원유의존도



자료: IMF Staff Report, Dec 2017

전 세계 원유매장량 현황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8

금융·무역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보유

- 쿠웨이트는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등 중동의 대규모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어 걸프 지역의 금융·무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1970년대 말까지 걸프 지역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으나, 1981년 이란-이라크 전쟁에 이어 1990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UAE(두바이), 카타르 등에 지위를 넘겨주었음.
- 국가개발계획 'New Kuwait 2035'를 통해 걸프 지역의 금융·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류기지 건설, 쿠웨이트 공항 증축, 철도 및 도로 증설,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임.

쿠웨이트 및 주변국 지도



자료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정책성과

'New Kuwait 2035 Strategy'를 통한 장기 국가개발계획 추진

-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 1월에는 국가 장기 경제개발계획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였음.
- 제4차 경제개발계획(2010/11~2014/15)에서는 1,050억 달러 예산으로 도로·항만, 의료·교육 등 경제·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음.
- 제5차 경제개발계획(2015/16~2019/20)은 1,160억 달러 규모로 경제 번영 및 경제 다각화, 투명한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2017년 1월 발표된 'New Kuwait 2035 Strategy'로 통합되었음.
- 'New Kuwait 2035 Strategy'는 2035년까지 북부 걸프 지역의 금융·상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전략과 7개 축(Pillar)를 설정하고,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총 16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54개 프로젝트를 할당하였음. 또한, 쿠웨이트 공항 터미널 확장 공사, 국철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음.

New Kuwait 2035 Strategy

5대 전략

- Citizen Participation and Respect of law
- Effective Government
- Prosperous Economy
- Nurturing Nation
- Globally Relevant Player

7개 축

- Global Positioning
- Developed Infrastructure
- High Quality Health Care
- Creative Human Capital
- Effective Civil Service
- Sustainable Diversified Economy
-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

- 한편, 경제 다각화 계획과 더불어 석유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정제능력 확대를 목표로 Al Zour 지역 정제소 건설(160억 달러) 및 Clean Fuels 프로젝트(120억 달러) 등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진행

- 'New Kuwait 2035'는 북부 걸프 지역의 무역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지연되었던 신도시(실크 시티 및 5개 섬)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는 쿠웨이트만의 북쪽 끝에 위치한 Subiya 지역(실크 시티)과 근처 5개 섬(Bubiyan, Warba, Failaka, Maskan, Awhah)에 레저, 관광, 무역, 헬스케어 및 주거공간을 어우르는 복합 도시를 건설하고 자유무역지대와 항구(Mubarak Al-kabeer Port), 수도인 쿠웨이트시티와 연결되는 교량(Jaber causeway) 등을 건설하여 동 지역을 외국인투자 및 상업 중심지로 부상시킬 계획임.
- Bubiyan 섬에 건설될 Mybarak Al-kabeer 항구는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위치하여 북부 걸프 지역의 육로와 수로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개발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1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고,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는 실크 시티 및 5개 섬 개발 프로젝트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One belt one road)와 연계시켜 발전시킬 계획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에는 동 프로젝트 개발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자국민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쿠웨이트인 고용 개선정책'(Kuwaitization) 실시

- 전체 인구 중 자국민의 비중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도, 이집트 등 출신의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전체 인구의 69%, 노동 인구의 82%)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민은 주로 공공 부문(76.8%)에, 외국인들은 주로 민간 부문(95%)에 종사하고 있음.
- 자국민들은 높은 임금 수준과 복지,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공공 부문 취업을 선호하여 대부분이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며,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부문의 취업을 기피함.
- 쿠웨이트의 전체 실업률은 2.07%로 낮은 편이나 최근 공공 부문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민 청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며* 자국민 실업률(4.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매년 14,000명의 자국민 청년 인구가 취업시장에 나오고 있음.
- 당국은 쿠웨이트인의 실업 문제가 부각되자 외국인 취업요건 강화, 공공 부문 외국인 근로자 해고 및 자국민 채용 확대, 민간 부문 자국민 쿼터제 등을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구직자들의 민간 부문 기피로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정치동향

고령의 국왕 및 왕세자로 인해 권력 투쟁에 따른 정치 불안 요소 잠재

- 현재 Sabah 국왕이 2006년부터 집권 중이나 89세의 고령으로 지속적인 통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Nawaf 왕세자(Crown Prince)가 추후 왕위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역시 81세의 고령으로 차기 왕세자 자리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왕의 두 조카인 Nasser 왕자(78세, 총리직 역임)와 Ahmad 왕자(56세, 부총리직 역임)가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파벌을 형성하여 경쟁 중이며, 국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Nasser왕자의 왕위 계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행정부·입법부 간 마찰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 존재

- 정부는 2015년부터 저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료 보조금 철폐, 임금 삭감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심화되며 양측간 마찰이 지속되어 왔음.
-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 유일하게 국회가 존재하는 나라이나, 의회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편임.
- Sabah 국왕은 정국 불안과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2016년 10월 국회를 해산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11월 총선에서 반 여권 성향 의원들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50석 중 24석)을 차지하여 정부 추진 프로젝트 및 재정지출 합리화, 세수 증대 조치 등에 반기를 들.
- 2017년 10월에는 내각 담당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의 비판에 반발한 내각이 총사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12월 새 내각이 구성된 바 있음.
- 이러한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2018년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VAT) 도입이 2021년 중반으로 미뤄지고, 2018/19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이 12.4% 가량 인상되는 등 정부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긴장 심화에 따른 추가적인 국회 해산 가능성도 존재함.

사회동향

시아파와 수니파 간 갈등은 타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은 편

- 쿠웨이트는 이슬람 인구가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가 수니파, 30%가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에 비해 종파 갈등이 크지 않은 편임.
- 2015년 6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시아파 모스크 테러를 자행한 후 두 종파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으나, 이후 이라크 내 IS 세력이 격파됨에 따라 갈등은 다시 완화되었음.

집회·시위 및 언론의 자유는 제한적

- 쿠웨이트 정부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 아울러 2015년 1월 정부 비판적인 일간지 al-Watan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 전자범죄법(Cyber-crimes law)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 전자범죄법의 경우 내용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온라인상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왕 및 왕가, 정부 관련 인사,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체포 및 기소의 대상임.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언론자유도는 180개 국가 중 105위에 불과하며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15년 쿠웨이트의 언론 및 출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주택난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불만 야기

- 쿠웨이트인 기혼 남성은 헌법상 무료로 주택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 공급(연 3,000가구 가량)이 수요(약 11만 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7~18년을 기다려야 해 젊은 세대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음.
-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신청 후 3년 안에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임.

국제관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카타르 단교 사태에 대한 중재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발생을 계기로 6월 초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6월 22일 쿠웨이트를 통해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을 전달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카타르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이란과의 외교관계 격하 및 Al-Jazeera 방송국 폐쇄 등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

- 쿠웨이트는 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Sabah al-Ahmad 국왕이 사태 초기부터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여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카타르가 OPEC 탈퇴를 선언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이란과 여전히 긴장관계 유지, 이라크와는 관계 개선 기대

- 쿠웨이트와 이란은 2016년 이란 시위대의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 공격 사건*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바 있으며, 최근 이란에서 쿠웨이트 내 시아파를 자극하기 위해 스파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유지될 전망이다.

*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정부의 시아파 지도자 처형에 반대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해 쿠웨이트 정부는 사우디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

-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국내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이라크 내 IS 잔당 퇴치에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이라크가 3년 간 중단했던 1990-91년 침공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재개하여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 쿠웨이트는 주요 원유 수출상대국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유 수출 및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내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쿠웨이트는 'New Kuwait 2035'에 포함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향후 북부 걸프 지역의 금융·무역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OECD에 의하면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쿠웨이트에 대한 여신 79.4억 달러 중 일부가 연체 중이나 0.1%(8.6백만 달러)로 소액에 불과하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18.01)	2등급(2017.01)
Moody's	Aa2 (2017.05)	Aa2 (2016.05)
Fitch	AA (2018.05)	AA (2017.10)

OECD 2등급, 국제신용평가사 AA 등급 유지

- OECD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쿠웨이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18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2등급을 부여하였음.
- Fitch는 AA 등급, Moody's는 Aa2 등급을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 3사 모두 쿠웨이트에 대해 투자 적격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등급인 AA 수준을 부여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세계 7위 규모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고유가에 힘입어 2011년 10.9%, 2012년 7.9%에 이르는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후 세계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음.
- 2017년 경제성장률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로 마이너스(-3.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증산 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증가, 정부 투자 확대 등에 따라 2.3%의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입과 수출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재정수지가 적자(GDP 대비 -13.5%)로 돌아서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2016년 0.6%까지 하락하였음.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6%로 흑자 전환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왕과 왕세자의 고령에 따라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왕실 내부의 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외차입 증가에 따라 2018년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55.8%로 추정되나, D.S.R.이 4.9%('18년 추정치)로 양호하고, 풍부한 외환보유액('18년 말 추정 363억 달러)과 국부펀드 규모('18. 8월 기준 5,920억 달러)를 감안시 외채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